

이것이 공화국특유의 또 하나의 사랑이고 힘이다

- 편지를 통해 보는 사랑과 충성의 역사 -

지구위 평범하고 소박한 생각이나 소식을 적어 상대방에게 전하는 편지.

여기에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충성의 역사가 비껴흐른다면 아마도 세상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 이 땅에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랑과 충성의 편지 역사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면면히 흐르고 있다.
이들 통해 사람들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된 공화국특유의 또 하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얼마전 진행된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 어달리고달리기에 넘쳐흐른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의 물결, 그 품을 찾아달리고달리던 험참고 담찬 모습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깊은 여운을 남겼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서 편지와 함께 사랑과 충성의 역사가 시작되었는 조국건설의 노래소리 높이높이 울리던 그때부터이다.

“...나서는 토지분여받은 북조선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민주국가창건에 일야분투하시는 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감사와 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는 극반농가의 둘째아들로 태어나서 3년간이나 머슴살이를 하였으며 생활이 시달리고 지주와 왜놈들의 착취와 압박에 못이겨 고향을 떠나 신천을 거쳐 재령군 삼강면에 와서 해방전까지 비참한 소작인생활을 계속하여왔습니다.

8.15해방을 맞이하여 영명하신 김일성장군의 지도밑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토지개혁실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혜택으로 처음으로 토지의 주인이 되었으며 그 혜택으로 살림살이가 넉넉하여졌고 자유로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개혁의 혜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마

음과 인민정권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아울러 김일성장군에 대한 감사는 끝이 없습니...

“...과거 암흑한 속에서 착취를 받던 우리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로동법령을 발표하여주시니 무한한 감사의 뜻으로 랑손을 높이 들어 이 법령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먼저 토지개혁을 완수하시고 20개조정강을 발표하신 후 이번에도 20개조정강중의 14조, 15조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되는 이 로동법령의 내용을 보고 감사하는 바이이며 이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산돌격인것을 깊이 명심하며 지도한계의 로동자로써 장군에게 무한한 경의를 드려주시고 올리는 바입니다. 민주주의건설사업부흥에 재 생명을 다 바치어 싸울것을 맹세합니다. ...”

“...특히 저희들 녀성들이 남자들과 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마음껏 일하게 된 기쁨과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 기쁨을 아끼면 서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많이 일할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

“...우리는 토지개혁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장군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

...이러한 토지개혁의 혜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마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맞으며 평양에 도착한 재일본조선인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상리(당시)의 한 농민과 해방된 이듬해 로동법령을 받아들인 로동자 그리고 문명 퇴치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 우리 글을 배운 기쁨과 행복을 안고 리계산녀성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삼가 올린 편지의 내용입니다.

비록 요란한 표현은 없어도 편지의 구절구절을 음미해볼수록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꿈같은 행복을 안겨주시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짐없는 효모의 정과 끝없는 고마움의 격정으로 어깨를 들떴을 이 나라의 농민들과 로동자들, 녀성들의 모습에 눈이 어리어오 수령님께서 찾아주시 조국을 위해 한몸 다 바치려는 그들의 꾸밈없는 진정을 느꼈다.

해방의 은인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들속에는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다.

“...해방이 되자 어른들은 힘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있으나 우리 소년소녀들은 활동하지 못하였는바 오늘 비로소 민주소년단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는... 오늘 조직한 소년단을 더욱 굳게 하여 나라일에 힘을 쓰려고 결심합니다. ...우리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완전독립 만세... 이것은 주제35(1946)년 6월 6일 당보에 실렸던 편지의 내용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해방을 맞이한 인민들과 아이들이 삼가 올리는 수많은 편지들을 보아주시고 몸소 회담까지 세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그속에는 재령땅의 한 농민이 예곡미 30가마니를 싣고 찾아왔을 때 훌륭한 예곡적소행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고 그를 맥에서 만나 고무해주시었으며 그와 재령군농민들에게 친히 감사편지를 써주시신 사실도 있고 까마득을 떠우고 계손으로 한자한자 정히 편지를 쓴 한 녀성에게 누구나 이악하게 노력하면 안될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친히 회담편지를 보내주신 사실도 있었으며 이 땅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감사의 정을 담아 올린 편지들을 회담장을 보내주신 이야기들도 있다.

해방의 감격에 목메어 인민들은 수령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고 수령은 인민들의 깨끗한 진정을 소중히 여겨 친히 회담까지 보내주시신 이야기, 이렇게 이 땅에서는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가는 편지의 역사, 사랑과 충성의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아버지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가 되고 자라가 령도자에게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 멀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점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아버지수령님께 총련 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이 드리는 편지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이런 사랑과 충성의 편지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과 인민들사이에도 뜨겁게 오고갔다. 오늘도 나라의 방방곡곡에 새겨져있는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친필들은 사랑과 충성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산울림주인공들처럼 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 정 일
2011. 1. 18》

《은 나라 인민들의 축복속에 래려난 애기이들을 축복이 라고 지어줍니다》
김 정 일
2002. 7. 23.》

이 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 전천군에 파견된 12명의 제대군인들과 피견향기수의 가정에 친혈육의 뜨거운 정을 부여주시며 몸소 회담해주신 사랑의 친필들이다.

이뿐이 아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상원 세멘트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의 종업원들과 대동단군과

자강땅의 제대군인들, 서흥군 범안리의 제대군인부부를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한자다자 쓰시어 보내주신 사랑의 글밭들을 받아 안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그 어디에나 있다.

아버지수령님과 인민들, 위대한 장군님과 인민들사이 오고간 사랑과 충성의 편지의 역사는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시며 더욱 빛나고 있다.

원 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비바람 사나운 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느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다. 못빛을 그날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배의 흥을 안아오라고 고기배의 흥을 《단풍》이라고 지어주시며 물고기잡이계획을 수행하면 자신께 편지로 기본 소식을 꼭 알려달라고 따뜻한 아버지정을 부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그후 물고기배를 짊은 사선과 함께 수산사업소의 종업원들이 올린 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또 언제인가는 북방의 한 녀인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했을 무었과도 바꿀수 없는 그해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

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었고 한 소년단원이 많은 과원을 수집하여 인민군대에 《소년》호 땅을 만듦으로써 보내는 데 기여한 사랑을 적어 삼가 올린 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정말 기특한 일을 했다고,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져 꼭 일당백 땅크병이 되라는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정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갖가지 사랑과 옹호하는 희망을 아뢰인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훌륭한 조선의 딸, 일당백 땅크병, 미술가, 과학자, 음악가가 되라고 정을 담아, 축복을 담아 세보내주신 사랑의 친필들과 평범한 로동자, 농민, 청년들을 비롯하여 그이께 스투밈없이 자기들의 마음속 생각을 터놓고 그이께신 그들의 편지마다에 사랑한다, 정답야 회담을 써주시신 이야기들 다 다하진 끝이 없다.

올라온 인류력사와 더불어 전해지는 편지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허다하지만 공화국에서처럼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그이께 또 따르며 한마음 다해 받들어보실 맹세를 담아서 쓰고 또 쓰고 령도자는 바꿀수 없는 그해생의 락으로 더 큰 사랑과 믿음을 부여주시는 그렇듯 열렬하고 뜨거운 혈연의 정서사시를 력사는 잊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오직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의 모습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 오고가는 사랑과 충성의 편지!

이는 수령과 인민사이 호르는 불보다 뜨거운 혈연의 정이고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전함없을 열화의 사랑과 불타는 맹세의 글밭이며 이 땅을 무궁번영하게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이다.

세상에 없는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힘이 떠받들려 공화국은 날아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으로 높이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절세위인들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오는 6월 19일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과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영예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도 조선로동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년전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민족자유주의의 승리라 할 수없는 진리를 뚜렷이 명시하고 그 수행으로 천만인민을 총결기시킨 정치지사반이었다.

당을 령도하여오신 나날 그이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노작들은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본태와 성격을 고수하고 존엄과 위용을 떨쳐나갈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어려운 나날에 선군국기치를 높이 드시었다.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의하여 혁명적근정신이 시대정신으로 나래치고 인민과 군대의 사상과 투쟁기공의 일치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다. 인민군대가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만드는 역사의 지지점으로, 조선로동당기를 제일건기로 들고 나가는 최정예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공화국은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있어서 인민은 언제나 스승이였으며 인민의 의사와 리익은 당의 로선과 정책작업의 출발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령도의 전기간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으며 인민의 정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군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인위원의 숭고한 리념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뜨겁게 깃들여있고 일군들이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위대한 총애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다신한 사랑의 손길에도 어리어였다.

아버지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도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 보살펴주는 영원한 삶의 품으로 천만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배양으로 높여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시며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도대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조국적사에 금문자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주제적 당건설사상과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수많은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아버지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함께 당중앙위원회 전위원회, 정치국회의 비롯한 수많은 중요당회의들은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한 중요한 계기들이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기념강의에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을 세세히 당건설방향으로 새롭게 제시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세대 당건설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므로써 최강의 집권사를 기록하고있는 존엄로운 조선로동당을 전도양양한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가고계신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기풍이 서게 되었다.

수재인들은 군당청사에서 생활하고 일군들은 전박에서 사업한 강동정은 이야기, 최대비상방역전의 나날 인민군대까지 인민의 생명수호와 건강강보를 위해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가슴뜨거운 화폭을 비롯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수많은 사실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인위원, 위헌현신의 숭고한 정치리념이 안아온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고 강국의 세시대가 펼쳐지고있으며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출되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날로 높아가고 있다.

참으로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로동당은 절대미문의 도전과 난관속에서 사회주의건설당건설의 세기적모험을 창조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진전을 출가하여 인도하며 강대한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천하에 힘있게 떨쳐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에서 온 나라 인민은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있으며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서충혁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위대한 나라

인민이 바라고 념원하는것이려면 친가지, 만가지 기적과 변혁을 모두 이루어내고 인민의 고통과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서슴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공화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치경륜을 이 땅우에 आरो세여가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이다. 여기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철학이 구현되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투철한 립장이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해오신 국가건설사상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어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국가건설사상에 의하여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익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 건설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제적 국가건설사상과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일떠서고 강화발전되고있다. 이 나라는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참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공고한 정치풍토, 국력으로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있다. 인민의 리상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출가치며 다그쳐나갈수 있는 불멸의 지침과 실천강령들을 제시하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도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고계시는 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고 강국의 공민된 인민의 자부심이 비상히 승화되고있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도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공화국의 면모는 인민의 운명과 생활,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데

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는것은 공화국이 최후대사로 내세우고있는 활동원칙이다.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공화국의 진보습은 세계적인 보건의위상향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시적인 대책들을 끊임없이 취해나가는 데도 어려웠고 어려울수록 인민들에게 더 큰 복리를 안겨주기 위해 친신고고하며 분투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을 위한 살림건설이 툭이 크게 벌어지고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

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질적인 성과,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있다.

지난해와 올해만 하여도 수도 평양에 보통강강안다락식주뢰자와 송해거리 1만세대 살림집,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훌륭히 일떠서고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새 교육을 받아안은데 이어 나라의 문명부흥을 앞치고있는데서 변혁적의의가 큰 중요대상들이 완공되어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의 환희성이 터져오른것은 인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헌신적복무가 얼마나 숭고한 경지에 이르르고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있다.

공화국의 인민적인 정책은 결코 조건이 유리하고 무엇이 풍족해서 일관하게 구현되고있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조국에 모든것을 의탁하고있는 인민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며 세상에 버림없는 행복을 마련해주시는것을 위하여 신성한 의무로, 영예로 여기며 모든 활동을 여기에 철저히 지향분종시키려나가는 국가가 아니고서는 엄두조차 벌수 없는것이다.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천만민족들의 생명과 생활, 미래까지 다 맡아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조국이 있기에 공화국인민은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두려움을 모르고 그 어떤 난이 다닥트와도 비판을 모른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공화국의 면모는 인민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역할을 비

상히 높여나가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인민을 신성시하고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나라, 인민이 자기 운명과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역할을 다해나가는 나라만이 참다운 인민의 국가라고 말할수 있다.

전체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성으로 정리 해안시키고 위헌현신의 성스러운 령정을 수종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책적인 령도에 의하여 국가의 모든 사업은 인민사왕으로 일관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되었고 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진행되고있다. 누구나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 동등한 정치적인리익 가지고 주권행사와 국가사회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은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어 나라의 물질적재부를 늘리는데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창조된 모든 재부는 철저히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리지고있다.

오늘 공화국인민은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리마다에서 깨끗한 량심을 발휘하고있다. 전체 인민이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며 열렬한 애국심과 고도의 자각성을 발휘해나가기에 공화국은 맞닥뜨는 도전과 장애를 과감히 부시며 강대한 나라로 끝없이 솟구치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인민은 신념에 넘쳐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격난속에서도 인민은 공화국정권을 굳게 믿고 국가를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절대 지지하며 받들어나가고있다. 준엄한 시기에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창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고 인민의 마음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억만금의 재부도 동태로 벌수 없는것이다.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천만민족들의 생명과 생활, 미래까지 다 맡아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조국이 있기에 공화국인민은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두려움을 모르고 그 어떤 난이 다닥트와도 비판을 모른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공화국의 면모는 인민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역할을 비 백영일